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의 대표성에 관한 고찰 : 차이별 모델(Chibal Model)의 제시

Study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Beijing Consensus : The New Chibal Model

허유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 | | |
|---------------------|--------------------------|
|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IV.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 |
|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V. 결론 : 차이별 모델의 제시 |
| III.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경제 | ABSTRACT |
| | 참고문헌 |

초 록

2004년 조슈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에 의해 중국의 경제성장방식을 특정 짓는 개념인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제기되었고, 이 개념은 여러 개도국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할만한 이상적인 경제 발전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베이징 컨센서스식의 성장방식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중국의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고, 대외의존도를 높여 구조적인 취약성을 지니게 했으며 소득격차, 지역격차, 부패,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해 사회문제와 사회 불만 세력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부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중국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기존의 양적인 성장방식을 질적인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주도의 성장보다는 시장화를 시킴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소프트파워를 강화해가고 다자주의를 중시하며 협력채널을 늘려가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고, 세계 공통의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모습으로 인식되기 위해 일련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필자는 중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개념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과연 현재의 중국 경제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며, 이제는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모델이 정립되거나 베이징 컨센서스에 수정이 필요한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의 재분배, 민생, 투명화, 녹색경제 그리고 세계의 조화, 평화, 균등, 환경을 중시하는 특징을 반영하는 모델을 새로이 세우고 이를 차이나(China)와 글로벌(Global)의 합성어인 차이별 모델(Chibal Model)이라 이름 붙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주제어: 중국경제, 베이징 컨센서스, 차이별 모델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레이브(Charles A. Lave)와 마치(James G. March)에 따르면 모델이라 함은 현실세계를 간략화 시킨 것으로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지만 현실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즉, 비록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모델은 존재하지는 않으나 관심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강조시킨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통하여 복잡한 현실세계를 보다 간략화 시켜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모델이라 함은 한 나라의 발전 방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전모델을 바르게 파악한다면 그 나라의 발전과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하는데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지닌 나라의 발전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교역을 하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국은 한국의 경제 및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영향력이 얼마나 증대하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코트라에서 실시한 한중 교역 현황에 관한 분석 자료를 보면 밝히 알 수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의 양국의 무역 교역액은 63억 7,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교역량이 나날이 증대하여 2003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2004년에는 최대 수출 교역국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교역액이 무려 1천억 달러를 돌파한 1,884억 1,000만 달러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의 교역액에 비하여 무려 30배가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 하였다고 한다.²⁾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밀접해진 경제 교역 관계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악화되면 그 영향이 바로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 분야 역시 양국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쉬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 및 긴장 관계가 조성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당시 중국인 유학생의 폭력사태와, 2011년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 중 한국 해경의 사망 사건 및 2012년 탈북자 문제 및 이어도 영유권 문제로 빚어진 갈등에서부터 극에 달했던 조선족 범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양국 관계가 수교이후 점진적으로 격상되어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이 한중 관계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을 것이다. 관계가 가까워지고 밀접해 질수록 양국 간에 생겨나는 문제들도 보다 복잡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발 금융위기와 중국내 지도부 교체로 가변성이 증대되었고 중국의 해군력확장에 대한 우려 등 소위 중국위협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중국모델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연구일 것이라 생각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Charles A. Lave, James G. March, An introduction to models in the social sciences (Rowman & Littlefield Pub Inc), p. 3.

2)

http://www.globalwindow.org/wps/PA_1_0_3PT/jsp/html/nation/NAGlobalInfoPdfView.jsp?fileName=/opt/IBMIHS/htdocs/attach/nation/101046/enc/101046_4001_14870.pdf (검색일: 2012.7.29)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한 나라의 발전 모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이 제기된 후 국내외 학자들 간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민자(2008)는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이 등장 한 후 과연 중국의 경제발전이 기존의 경험과 얼마나 다른가에 관한 논쟁에 대해,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비교하여 중국모델의 특수성은 외자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에 있다고 평가했고³⁾ 천즈우(陈志武, 2011)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⁴⁾

김시중(2012)은 중국의 발전전략은 다면적이고 시기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엇에 주목하여 분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다면성과 시간적 가변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경제 성장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며 또한 1980~1990년대와 2000년대의 경제 성장 방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⁵⁾

베리나톤(Barry Nauton, 2010)은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며, 중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협의를 대표하지도 못하며,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용어는 모순이라고 평가했다.⁶⁾

천(Minglu Chen)과 굤먼(David S. G. Goodman)은 베이징 컨센서스를 모델로 개념화 시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나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⁷⁾ 케네디(SCOTT KENNEDY)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중국의 실제 경험들을 잘못 측정하여 보여주었고, 잘못 소개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중국의 구별된 발전 경험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⁸⁾

우수첸(吴树青)은 중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는 개혁이 바로 철저한 개혁으로, 중국의 개혁이 결국에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여기지만, 이 두 개의 컨센서스는 사상과 목표가 다르며, 중국은 사회주의제도가 가진 우수성이 개혁을 통해 발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⁹⁾

이외에도 현재 충칭모델¹⁰⁾, 광둥모델¹¹⁾, 동아시아 모델¹²⁾ 등 지역적 특수성과 그만의 고유한

3) 이민자, “중국 발전모델의 특징 : 동아시아 발전모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신아세아』, Vol. 15, No. 1 (2008), pp. 68-94.
 4) 천즈우(陈志武), 『중국식 모델은 없다』, (메디치미디어, 2011), p. 4.
 5) 김시중, “중국 경제 성장의 고유 모델은 존재하는가?,” 『CHINDIA journal』, Vol. 67, No. 0 (2012), p. 22.
 6) Barry Nauton, “China’s Distinctive System: can it be a model for others?,”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pp. 437-460.
 7) Minglu Chen, David S. G. Goodman, 『The China Model: one country, six authors』, (The Rise of China and the Regional Responses in the Asia-Pacific), Vol. 1 (2011), pp. 169-185.
 8) Scott Kennedy, “The Myth of the Beijing Consensus,”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pp. 461-477.
 9) 田泓, “怎样看待华盛顿共识与北京共识-听京沪经济学家吴树青与程恩富的对话,” 『华东新闻』 第三版, 2005年 06月 16日.
 10) 충칭모델은 덩의 선부론에 맞서 ‘공부론(共同富裕)’을 내세운다.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조화사회를 실현하는 기초라는 것이다. 충칭모델에서 내세우는 대안은 사회주의적 도덕과 공동체 정신의 고양, 그리고 민생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한광수, “중국의 발전 모델 논쟁: 시장경제 부작용에 주목-지도부 교체 임박과 맞물려 논쟁 가열,” 『CHINDIA journal』, Vol. 67, No. 0 (2012), p. 23.)
 11) ‘광둥 모델’의 뿌리는 덩샤오핑이 광둥성을 중심으로 먼저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 데서 유래한다. 광둥 모델은 앞서가던 광둥 경제가 설비 노후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

발전방식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필자는 충칭모델과 광둥모델은 전체 중국의 경제발전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보편성이 부족하고, 동아시아 모델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방식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므로, 가장 광범위하게 중국의 경제성장방식을 대표할 수 있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가지고 중국경제를 대입해 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 자료들과 보도자료 및 관련 서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징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기존의 중국 경제의 발전 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현재 중국의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봄으로써 베이징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기존의 중국 모델이 현재의 중국의 경제 상황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 3장에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제기된 배경과 특징이 무엇인지와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검토하고 난 뒤, 제 4장에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현재 및 앞으로의 중국 경제의 발전방식을 대표할 수 있는 유효한 모델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제 5장에서는 차이별모델(Chibal Model)이라는 새로운 중국의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나름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다.

III.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경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용어가 제기되기 시작한 배경은 중국의 서방세계와는 다른 중국만의 경험과 방식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했는지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978년 본격적으로 서방세계에 문호를 열은 개혁개방의 시작으로 중국은 20여 년간 9.5퍼센트가 넘는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7.3퍼센트 포인트 높은 성장속도였으며,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는 4.8퍼센트 포인트가 넘는 성장속도였다. 또한 개혁개방이 막 시작되었을 1980년에는 중국의 GDP가 5000 억 위안이 되지 못했지만, 2003년에는 GDP가 116694 억 위안에 달해 전 세계 6위의 자리를 차지했다.¹³⁾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¹⁴⁾이 되었으며 현재는 해외 각지로 로컬 기업을 내보내고 첨단기술도입 등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세계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지금은 이른바 G2¹⁵⁾라는 경제대국을 넘어 C2¹⁶⁾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과 변화를 지속하고

자 개혁과 경쟁, 효율을 강조하며 성장 동력을 살려 내는데 주요한 점을 두고 있다.(한광수 (2012), pp. 22-23)
 12)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발전주도체제로서의 개발 독재형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여 경제발전이 필요한 여건을 확보한 다음 국가주도형 수출 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추진하여 고속성장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에는 개발독재로 유보했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는 발전형태(구중서,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한국,” 『한국정치학회보』, Vol. 30, No. 2 (1996), p. 209.)
 13) 田泓 (2005).
 14) 그레디트 스위스은행(Credit Suisse Bank)은 중국이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20년에는 21.4%로 미국의 20.7%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도 내수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2015년까지 평균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 상승에 의한 소비 촉진으로 인하여 중국의 내수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진출 기업들에게는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김홍준, 『CHINA MARKETING』, (서울: 박영사, 2011), p. 380.)
 15) G2(Group2)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지칭한다.
 16) C2(Cooperation2)는 2012년 미중전략경제회의에서 처음 나온 말로 이전의 미국과 중국 중심의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영도라는 원칙아래에서 실시된 강력한 중앙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한 결과였다. 특히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선진국 경제가 모두 심각한 침체에 봉착한 상황¹⁷⁾에서도 중국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가 베이징 컨센서스에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이 다른 나라의 방식이나 주류 경제학의 처방,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와 비교하여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방식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대안이 될 만한 '모델'로 정의될 만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¹⁸⁾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세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의 고문이며 중국 청화대학교(清华大学)의 교수인 조슈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가 2004년 5월 영국 런던의 외교정책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제기한 당대경제발전(當代經濟發展)에 관한 개념으로 이 개념은 유럽, 중국 그리고 세계 기타 여러 나라의 강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조슈아 쿠퍼 라모는 중국의 20여 년 간의 경제개혁성과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이 비단 중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국민생활개선을 위해 여타의 개발도상국들이 추구할 만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기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세 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창신과 실험, 둘째로는 국가주권과 이익 수호의 견지, 셋째로는 점진과 역량의 축적으로 그중 창신과 실험이 베이징 컨센서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중국식 국가발전 전략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공산당 일당체제, 국가와 민간의 혼합소유체제(국가자본주의), 실용주의, 대외적 불간섭주의 등이 베이징 컨센서스의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된다.²⁰⁾

필자는 조슈아 쿠퍼 라모가 제시한 위의 3가지 키워드보다는 대외적 불간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주목 했다.

첫째, 베이징 컨센서스는 시장주의식의 경제성장방식과는 다른 강력한 정부주도로 시행되는 모델이기에 협상 시 다양한 이해집단의 압력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겪지 않는 단순화된 협상 절차를 통해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 하는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 될 수 있었다는 점이였다.²¹⁾

둘째, 중국이 막대한 노동력과 자본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에 수도, 고속도로 등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해준 것으로 계획경제체제하에 있는 국가이든 시장경제 체제하에 있는 국가이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친미국가이든 반미국가이든 이데올로기에 관계 없이 대외적 불간섭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막대한 인력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SOC건설을 지원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완공된 인도네시아의 쿠타이대교, 2007년에 완공된 나이지리아의 레키자자유무역구, 2009년에 완공된 탄자니아의 국립경기가장 이에 해당한다.²²⁾

셋째, 베이징 컨센서스가 경제 분야 뿐 만이 아니라 군사·외교 분야로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점으로 SOC건설 등을 해주는 것이 표면상으로는 경제적 차원의 무상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군사·안보차원의 전략적인 원조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테면 중국정부는 파키스탄의 쿠와티르 항구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주면서 자국의 해군의 주둔권을 얻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간에 위치해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는 해군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도 가는 석유수출라인이 지나는 곳이라는 점이다.²³⁾

이상의 내용과 같이 베이징 컨센서스는 민주, 인권, 자유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구별되게 중국만의 특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전개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이상적인 경제개발 모델로 부상해왔으나 고성장의 부작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이른바 양적팽창에만 힘을 써서 초래된 결과로 왜곡된 산업구조와 불균형 발전 그리고 양극화로 비롯된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문제 등이 야기된 것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수입구조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2008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에 달했으며²⁴⁾, 중국의 도시 주민의 수입은 농촌주민수입의 3.5배가 높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농격차를 기록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²⁵⁾에 빠지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경제에 대한 간여를 한층 강화하여 4조위안의 경제축진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투자를 통해 2009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8.7%까지 끌어 올렸다.²⁶⁾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국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대처로 국진민퇴(國進民退)²⁷⁾의 결과를 낳았다.²⁸⁾

IV.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

앞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등장 배경 과 개념설명에 이어 특징 및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의 경제발전방식을 대표하는 모델이 과연 중국의 경제발전을 대표로 모델로 불릴만한 대표성을 지니는가에 여부를 판단할 때이다.

필자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중국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고,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

세계질서를 뜻하는 G2라는 용어대신 협력, 공영 등을 뜻하는 말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나타낸다.

17) 미국 경제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99%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병색이 깊어졌고,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승승장구하던 미국 자본주의는 고개를 숙였다. 개혁과는 오바마 정부가 목청만 높였지 월스트리트에 포위된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베이징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한광수 (2012), p. 32.)

18) 김시중 (2012), p. 22.

19) 郭彩萍, "北京共识 (The Beijing Consensus)," 『中国经济网综合』, 2009年 11月8日.

20) 강현철, "인권 외면하는 중국... 글로벌 리더 맞아?," 『한국경제』, 2012년 3월 9일.

21) 김시중 (2012), pp. 22-23.

22) 유민호, "'베이징 컨센서스'의 도전 중국 지분을 4.42% 미·일 이어 3위," 『주간조선』, 2012년 4월 9일.

23) 유민호 (2012)

24) 지니계수는 0부터 1사이의 숫자로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다. 2008년 중국이 도달한 0.47은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미국의 지니계수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Yang Yao, "The End of the Beijing Consensus—Can China's Model of Authoritarian Growth Survive?," 『FOREIGN AFFAIRS』, 2010.02.19.)

25) 중진국 함정이란,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개념으로 개발 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되어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http://dic.mk.co.kr/cp/pop/desc.php (검색일: 2012.9.24.))

26) 姚祥, "终结'北京共识'," 『财经网』, 2012年 2月 23日.

27) 국진민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형 국유기업은 확장·발전시키지만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민영기업은 퇴출시키는 결과를 국가경제의 효율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초래한다.(“국진민퇴(國進民退)의 발전과 전망,” 2010년 04월, 『이슈리포트』, Vol. 10, No. 3.)

28) 姚祥 (2012)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으나,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금은 중국 경제가 베이징 컨센서스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먼저 중국의 국내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수정의 필요성 혹은 베이징 컨센서스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정부주도로 대표되는 베이징 컨센서스 식의 경제성장방식으로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 결과, 중국 경제는 과도한 수출 지향성 구조를 갖게 되었고 대외의존도²⁹⁾가 매우 높다는 취약점을 안게 되었다³⁰⁾. 그러나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므로 기존의 베이징 컨센서스 식의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왜곡된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와 수출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을 한 결과, 중국 내의 소비는 투자와 수출에 비하여 위축되었고 이는 주요 구조의 불균형을 낳게 되었다.³¹⁾ 게다가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 및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기존의 베이징 컨센서스 식의 경제성장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소득구조의 격차, 지역격차, 부패 등의 문제로 사회 불만이 계속해서 누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존 모델의 수정 혹은 신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앞의 절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현재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계층마다 수입이 불평등하게 증가하며 결국 사회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³²⁾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난 천안문 사태도 이러한 갈등 표출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제는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소득분배구조는 불평등에 치달게 되었다. 이는 중국 인민이 노동환경과 소득구조에 대한 불만을 갖게끔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켜 결국 노동자와 학생 등 인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개혁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현재 중국에는 웨이보(微博)를 비롯한 SNS가 발달하고 있으며 각계 이익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어, 아무리 정부의 권한이 강할지라도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소득격차, 도농격차, 사회보장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강력한 정부주도로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을 우선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기존의 베이징 컨센서스식의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중국은 사회 불만을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사회에 대한 인민의 불만이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이어져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상의 3가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의 경제에는 베이징 컨센서스 식의 성장방식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 방식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위해,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하기위해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保八(保八)정책을 포기하고 올해에는 경제성장률의 목표를 8 퍼센트보다 0.5퍼센트 낮은 7.5퍼센트대로 내렸는데 이를 보면 중국정부도 불협화음을 내는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슈아 쿠퍼 라모가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어구인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변형시켜 소개했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매우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이 주지하고 있는 뜻을 소개하고 싶다.

먼저 흑묘백묘라 함은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지칭하는 말로, 이 대비되는 색의 두 고양이는 각각 시장경제체와 계획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즉 시장경제든 계획경제든 경제성장을 해서 인민의 배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덩샤오핑 시대의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구이다.

그런데 이 흑묘백묘론이 고속성장을 꺾고 나자 아주 재미있게 변형됐는데 바로 오늘날의 중국에는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 보다는 녹색고양이와 투명한 고양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녹색고양이는 환경보호, 과학적 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뜻하며 투명한 고양이는 GDP등과 같이 중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수치가 반드시 투명해져야 함을 뜻한다. 또한 오염을 줄이고 부패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³³⁾

필자는 조슈아 쿠퍼 라모가 제기한 녹색고양이와 투명한 고양이를 현재 중국의 경제가 더욱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시라이(薄熙來)사건으로 중국정치계의 부패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중국 인민들의 분노를 사자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2012년 5월 14일 내외신기자회견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불공정한 분배, 불신,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체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체제개혁 특히 당과 국가지도체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문화대혁명이 라는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고 까지 언급했다.³⁴⁾

이를 통해 조슈아 쿠퍼 라모가 베이징 컨센서스를 제기 했던 2004년에서 8년이 흐른 2012년의 현재에는 중국의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모두에 녹색고양이와 투명한 고양이가 더 절실히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분야 같은 경우 실제로 중국정부는 투명한 고양이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는 항상 중국의 경제개혁 분야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 되어 왔는데 중국 정부는 올 9월에 정부자산부채표(政府資產負債表)를 시험적으로 작성하여 부채 상황을 더 투명하게 살펴봄으로써 지방정부의 기채능력(起債能力)을 평가하는데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 기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³⁵⁾

필자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들이 중국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개혁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를 고성장으로 이끌었던 국유기업개혁과 같은 좀 더 혁신적인 방안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강력한 정부주도로 고성장을 이끌었던 다소 불투명한 고양이 활약했던 베이징 컨센서스 시기보다는 좀 더 시장화되고 투명화된 고양이가 앞으로 더 필요해 질 것이다.

29) 현재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 국가의 대외의존도는 30% 안팎인 반면, 2011년 중국의 수출입 대외 의존도는 50.1%를 기록했다.("我国外贸依存度回落至50.1%", 『经济日报』, 2012년 2월 18日.)

30) 한광수, "중국의 발전 모델 논쟁: 시장경제 부작용에 주목-지도부 교체 임박과 맞물려 논쟁 가열," 『포스코경영연구소』, Vol. 67, No. 23 (2012), p. 32.

31) 김시중 (2012), p. 24.

32) Yang Yao (2010)

33) http://www.comment-cn.net/culture/chinaculture/2006/0321/article_18692.html (검색일: 2012.9.22.)

34) 軒頌, "원자바오, 정치개혁 성공 못하면 경제개혁 지속될 수 없어," 『인민일보 한국어판』, 2012년 5월 14일.

35) 梁嘉琳, 方輝, "中,정부자산부채표 시험 작성...기채능력 평가에 일조," 『인민일보 한국어판』, 2012년 9월 12일.

이러한 국내적 요인 이외에도 세계화라는 국외적 요인들이 중국의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기존의 베이징 컨센서스가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과 점점 더 차질이 생겨나고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주목할 점은 대외적 불간섭주의에 기반하여 국가의 이념에 관계없이 심지어 독재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경제 원조를 진행했던 기존의 베이징 컨센서스와는 다르게 중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가 고성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중국의 패권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해군력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위협론이라는 개념까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의 부상이 과연 주변국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라는 논쟁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국제사회의 가치와 규범들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자기구에의 참여를 늘리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참여 수준을 넘어서 주도국의 위치를 확보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ASEAN+3³⁶⁾, 아세안지역포럼(ARF)³⁷⁾,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³⁸⁾, 북핵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등 남아에 대해 기존의 정부주도의 강력한 원조로 외교를 진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드러운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³⁹⁾

이러한 면면들을 보았을 때 결국 중국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세력과의 갈등보다는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베이징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방식을 고수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격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위해서, 그리고 중국 내부의 단결과 안정을 위해서 베이징 컨센서스식의 경제 성장 방식에 반드시 수정을 가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 때라고 생각된다.

V. 결론 : 차이별 모델의 제시

한 국가의 발전모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전모델은 현재 그 국가의 정책이 무엇에 우선순위에 두고 정립되는지 보여주는 뼈대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모델을 통해 상

36) 아세안+3(ASEAN+3)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3개 국가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협동 포럼이다. (위키 백과)

37)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낮은 단계의 협력안보를 반영하여 1994년에 완성되었고, 1995년 장관회의에서 지역안보협력에 관한 3단계 조치—신뢰구축, 예방외교, 충돌해결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의 주도하에 ‘상하이 5국’이 1996년에 결성되어 2001년 정식으로 다자안보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OC)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협력안보가 중국의 안보정책의 수립에 주요 준거가 되었다.(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상하이협력기구(SOC)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 44, No. 4 (2004), p. 122.)

38)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2001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4국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서, 1996년 중국이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더불어 결성한 ‘상하이 5국’을 모체로 하고 있다. 현재 중점 활동 분야는 안보, 경제, 교통, 문화, 재난구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류동원 (2004), pp. 132-133.)

39) 이동률, “중국의 강대국화 외교전략과 과제,” 『국방연구』, Vol. 53, No. 3 (2010), pp. 3-8.

대국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상대국의 정치 혹은 경제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상대국의 발전모델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그에 걸맞은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다. 또한 상대국의 발전모델을 잘 못 파악했다면 그 나라와의 교역이나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파고를 범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 상대국의 발전모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는 연구이기도하다.

중국은 이상에서 주지했다시피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국가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게다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맺은 이래로 20년간 정치적 관계도 경제적 관계만큼이나 밀접해져 대한민국의 경제든 외교든 정치든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져서 지금은 영향력이 닿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힘들 정도로 중국과 한국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국가가 되었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국가이므로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개혁개방이후 고속성장을 한 만큼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 제도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긴장을 풀지 말고 연구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외에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조슈아 쿠퍼 라모에 의해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이 제기되었고, 이 베이징 컨센서스는 여러 개도국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만한 이상적인 경제 발전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조슈아 쿠퍼 라모가 제기한 베이징 컨센서스는 창신과 실험, 국가주권과 이익 수호의 견지, 점진과 역량의 축적이라는 특징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유, 인권, 민주를 중심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되는 개념인 대외적 불간섭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측면에 주목을 했다. 필자가 주목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베이징 컨센서스로 특징지어지는 중국경제를 보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루어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중국의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고 대외의존도를 높여 구조적인 취약성을 지니게 했으며 소득격차, 지역격차, 부패,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해 사회문제와 사회불만세력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도 했다.

필자는 중국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기존의 양적인 성장방식을 질적인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주도의 성장보다는 시장화를 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이 독재국가를 원조하고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만 가는 세계의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소프트파워를 강화해가고 다자주의를 중시하며 협력채널을 늘려가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고, 세계 공통의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서방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같이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이기보다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모습으로 인식되기 위해 일련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들이 물론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이러한 특징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물론 현재 중국이 영토문제 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가 더 고조되는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필자가 주목한 질적 성장, 분배, 시장화, 소프트파워의 강화, 다자주의의 중시, 책임대국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과연 현재의 중국경제

의 특색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연 앞으로의 중국경제의 모습을 대표할만한 대표성을 지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제는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모델의 정립하거나 베이징 컨센서스에 수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며 관치주의의 도시인 베이징이라는 수도의 이름을 딴,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특징⁴⁰⁾들을 반영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있는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중국 경제의 모습을 보는 것 보다 부의 재분배, 민생, 투명화, 녹색경제 등의 특징뿐만 아니라 세계의 조화, 평화, 균등, 환경을 중시하는 특징까지도 반영하는 모델을 새로이 세우고 이를 차이나(China)와 글로벌(Global)의 합성어인 차이별 모델(Chibal Model)이라 이름 붙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한 차이별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시기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료조사의 부족, 모호한 시기구분, 너무 큰 범위의 특징들을 제시하는 등의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중국의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차이별 모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특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논문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ABSTRACT]

Study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Beijing Consensus : The New Chibal Model

Yu Mi Ho, Hanyang Univ

Understanding a nation's development model is crucial. Development model works as a backbone that reflects national policy priorities. Thus, development model serves as a key that allows for highly accurate observation of the nation's politics and economic structure when observing a nation, hence, mapping out strategies toward the nation accordingly. However, if the nation's development model fails to notice the major shift or be misinterpreted, it is open to creating an error with regard to policy-decision process. Therefore, it is vital for nations with close proximity with China to first conduct a careful analysis of the nation before formulating diplomatic and commercial policies towards China. For these reasons, n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re highly cautious of the initiatives taken by China, and through this careful scrutiny came the Beijing Consensus first coined by Joshua Cooper Ramo in 2004. The Beijing Consensus has been suggested as an ideal economic development model for developing nations that could replace the Washington Consensus. The Beijing Consensus by Joshua Cooper Ramo mainly focuses on thre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commitment to innovation and constant experimentation, self-determination and financial sovereignty and process and capacity accumulation. Comparatively, the author has focused mainly on external non-interference and national capitalism aspect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Washington Consensus that focuses on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Seen from these two aspects, the Beijing Consensus that is characterized by Chinese economy has fostere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owever, it has also created the problems such as distorting the Chinese industrial structure, augmenting external reliance, higher income and regional gap, government corrup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ese negative consequences have created social problems that brought about social discont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well awar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us, it is transforming its quantity-based development to quality-based development as well as marketization rather than the development led by the strong government. The author judges that by doing so, China is recovering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pursu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in order to alleviate the worries created by the international media on Chinese authoritarianism and increased military capacity, China is strengthening the soft power, putting importance on multilateralism to diversify cooperation channel,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ctively engaging in transnational problems instead of avoiding them. The author proposes that China is putting its effort to be reflected as a nation of responsibility rather than a nation of a threat, as the imperialistic western-nations of the past. These characteristics of China did not appear in one day.

40) 양동평(楊東平), 『중국의 두얼굴』, (서울: 펜타그램, 2008), pp. 82-84.

However, the author believes that as the time progresses, these characteristics will be strengthened. Although there are situations where Chinese nationalism is highly emphasized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seen from the larger framework, Chinese external policies will not deviate from the core emphasis on quality development, distribution, marketization, strengthened soft power, respect for multilateralism, responsible nation. With these characteristics in mind, the author has throw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eijing Consensus can sufficiently reflect the status quo of the Chinese economy. The author came to a conclusion that it has reached a time to formulate a new model that can represent the Chinese economy or revise the Beijing Consensus accordingly. Beijing Consensus, which was coined from the conservative, traditional and bureaucratic city of Beijing which highly reflects the system focused on central government, should not be seen as the status quo of the Chinese economy. It should rather be concentrated on redistribution of wealth, public welfare, equalization and environment based model. Hence the author proposes a new term "Chibal Model", which combines 'China' and 'Global' together.

Keywords: China Economy, Beijing Consensus, Chibal Model

참고문헌

- 강현철, "인권 외면하는 중국... 글로벌 리더 맞아?" 『한국경제』, 2012년 3월 9일.
 구중서,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한국," 『한국정치학회보』, Vol. 30, No. 2 (1996).
 김시중, "중국 경제 성장의 고유 모델은 존재하는가?" 『CHINDIA journal』, Vol. 67, No.0 (2012).
 김용준, 『CHINA MARKETING』, (서울: 박영사, 2011).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상하이협력기구(SOC)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 44, No. 4 (2004).
 유민호, "'베이징 컨센서스'의 도전 중국 지분율 4.42% 미·일 이어 3위," 『주간조선』, 2012년 4월 9일.
 이동률, "중국의 강대국화 외교전략과 과제," 『국방연구』, Vol. 53, No. 3, (2010).
 이민자, "중국 발전모델의 특징 :동아시아 발전모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신아세아』, Vol. 15, No. 1 (2008).
 한광수, "중국의 발전 모델 논쟁: 시장경제 부작용에 주목-지도부 교체 압박과 맞물려 논쟁 가열," 『CHINDIA journal』, Vol. 67, No. 0 (2012).
 "국진민퇴(國進民退)의 발전과 전망," 2010년 04월, 『이슈리포트』, Vol.10, No.3.
 Barry Nauton, "China's Distinctive System: can it be a model for others?,"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Charles A. Lave, James G. March, An introduction to models in the social sciences (Rowman & Littlefield Pub Inc).
 Minglu Chen, David S. G. Goodman, 『The China Model: one country, six authors』, (The Rise of China and the Regional Responses in the Asia-Pacific), Vol. 1 (2011).
 Scott Kennedy, "The Myth of the Beijing Consensus,"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Yang Yao, "The End of the Beijing Consensus—Can China's Model of Authoritarian Growth Survive?," 『FOREIGN AFFAIRS』, 2010.02.19.
 姚洋, "终结北京共识," 『财经网』, 2012年 2月 23日.
 郭彩萍, "北京共识 (The Beijing Consensus)," 『中国经济网综合』, 2009年 11月 8日.
 梁嘉琳, 方燁, "中,정부자산부채표 시험 작성...기체능력 평가에 일조," 『인민일보 한국어판』, 2012년 9월 12일.
 楊東平, 『중국의 두얼굴』, (서울: 펜타그램, 2008).
 田泓, "怎样看待华盛顿共识与北京共识-听京沪经济学家吴树青与程恩富的对话," 『华东新闻』 第三版, 2005年 06月 16日.
 陈志武, 『중국식 모델은 없다』, (메디치미디어, 2011).
 軒頌, "원자바오, 정치개혁 성공 못하면 경제개혁 지속될 수 없어," 『인민일보 한국어판』, 2012년 5월 14일.
 "我国外贸依存度回落至50.1%", 『经济日报』, 2012年 2月 18日.
http://www.globalwindow.org/wps/PA_1_0_3PT/jsp/html/nation/NAGlobalInfoPdfView.jsp?fileName=/opt/IBMIHS/htdocs/attach/nation/101046/enc/101046_4001_14870.pdf (검색일: 2012.7.29)
<http://dic.mk.co.kr/cp/pop/desc.php> (검색일: 2012.9.24.)
http://www.comment-cn.net/culture/chinaculture/2006/0321/article_18692.html (검색일: 2012.9.22.)

위키백과